# 리만코리아, 제주 용암해수 등 화장품 원료 차별화 '구슬땀'

**세계 유일 신품종 개발 기술력 갖춰**
**'자이언트 병풀' 직접 재배·연구**
**'아이씨디' 브랜드 사업 본격 추진**

K뷰티가 '원료 차별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리만코리아는 세계 유일 신품종을 개발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국내 대표 천연자원인 제주도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등 독자적인 원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리만팜은 재배동과 연구동으로 구분되며, 자이언트 병풀이 자라고 있다. /리만코리아

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제주 서귀포에 마련한 리만팜에서 '자이언트 병풀'을 직접 재배하며 연구개발하고 있다. 리만코리아가 지난 6년에 걸쳐 올해 3월 완공한 리만팜은 첨단 시설을 도입한 스마트팜으로 자이언트 병풀 생산기지다.

자이언트 병풀은 앞서 2019년 신품종으로 출원됐다. 이후 2022년 7월에는 국내 산림청을 통해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에 따라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이름을 올렸다. 100% 국내산 제주 병풀에서 엄선한 핵심 원료라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자이언트 병풀은 고기능성 원료로 일반 병풀과는 DNA가 달라 피부 재생, 항산화, 항염 등에서 다양한 생리 활성 작용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생산하는 능력은 일반 병풀 대비 48%, 주름 개선을 위한 콜라겐발현량은 일반 병풀 대비 63% 높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리 활성을 공유하며 자이언트 병풀에서 공생하는 미생물 연구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자이언트 병풀 유래 유산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너뷰티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리만코리아는 자사 화장품 브랜드 '아이씨디'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주원료인 자이언트 병풀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리만코리아는 리만팜을 통해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 병풀보다 2~4배 우수한 잎의 크기, 건조하지 않는 생육 과정, 재배 기간 등 각종 데이터를 최적화해 구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만팜은 자연 채광에 적합한 개방형 구조로 설계됐고 특수 소재 ETFE 천창을 설치했다. 병풀은 자외선을 충분히 받아야 유효 성분이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섬진강 모래 배드를 구축한 것도 재배 경쟁력을 높인다. 제주 바다의 모래는 염분이 많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지 모래를 들여왔고 미네랄 중심의 성분, 입자 등 세분화한 요소를 반영했다. 재배 기술은 충북농업기술원과 기술사용권 계약을 체결해 특허 기술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리만팜이 제주 용암해수 산업단지 옆에 위치한 것도 특징이다. 일반 화장품이 정제수를 사용한다. 이에 비해 리만코리아는 제주 용암해수를 기반으로 천연 미네랄, 영양 염분 등을 집약한 '용암병풀수'를 완성했다.

이와 관련 서대방 병풀연구소장 상무이사는 "리만팜의 핵심 경쟁력은 최적화, 표준화, 원료 양질화에 있다"며 "화장품에 가장 적합한 자이언트 병풀을 재배하기 위한 조건을 제주에서 찾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주는 물류비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적으로는 제조시설이 잘 들어서지 않지만, 리만코리아는 약 100억원 수준의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며 "리만팜에서 재배 환경을 표준화하고, 자이언트 병풀과 제주 용암해수를 결합해 원료화하는 단계를 무한 반복해 제품 고도화를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리만코리아 원료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총괄하는 이태희 에스크베이스 대표는 "혁신 소재인 자이언트 병풀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AGE20'S**
## 日 스킨케어 시장 공략
**'비타씨 스킨케어 톤업 베이스' 선봬**

에이지투웨니스(AGE20'S)에서 촉촉하고 생기 있는 스킨케어는 물론 핑크빛 톤으로 피부를 균일하게 정돈해 주는 '비타씨 스킨케어 톤업 베이스(**사진**)'를 일본 시장에 선보였다.

AGE20'S 비타씨 스킨케어 톤업 베이스는 발효 복숭아와 3종 비타민C 성분을 함유해 민낯으로부터 밝아지는 스킨케어링 톤업 베이스이다. 비타민C, 펩타 비타민C, 히알루론산비타민C 등 3가지 비타민C 성분과 함께 복숭아 세라마이드 성분을 복합 처방해 피부 장벽 강화는 물론 피부에 수분감과 화사함을 제공한다.

AGE20'S는 비타씨 스킨케어 톤업 베이스를 라쿠텐, 큐텐 재팬, 아마존 재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며, 하반기 일본 대규모 쇼핑 축제인 라쿠텐 슈퍼세일 및 큐텐 메가와리 행사에도 참여해 일본 현지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글로벌 처방 가속화

**호주에 '스테키마·옴리클로' 판매**
**뉴질랜드서 앱토즈마 등 출시 계획**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옴리클로'를 호주에 출시하며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은 셀트리온 호주 법인과 현지 유통 파트너사인 아로텍스(Arrotex)에서 각각 판매를 담당해 영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호주 제약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각 유통사가 주력하는 공급 채널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판매망을 더욱 촘촘히 타겟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셀트리온

회사측에 따르면 호주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통상 입찰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반면, 자가 투여 제품은 약국 등 공급 채널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입찰 성과를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판매망 확대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인 호주 제약 산업 특성이 더해지면서 제품의 시장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가 낮은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 간소화 등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유도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호주에서 램시마 제품군은 5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는 단독으로 27%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뉴질랜드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허쥬마는 지난 2022년 뉴질랜드에 출시된 이후 트라스투주맙 정부 입찰에서 계속 낙찰에 성공해 왔다.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허쥬마는 뉴질랜드에서 100%에 근접한 점유율을 나타냈다. 셀트리온 뉴질랜드 법인은 올 3월 '베그젤마'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항암제 간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처방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6년에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및 '앱토즈마'를 출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김지태 남부아시아 담당장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제도 환경 및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판매 전략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후속 제품 출시를 통한 포트폴리오 강화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웅바이오**
## '치매극복선도기업' 지정

대웅바이오는 지난 3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돼 기념 현판을 수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치매극복선도기업'은 중앙치매센터가 국가 치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치매극복선도기업 선정과 관련 대웅바이오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성곤 대웅바이오 대표는 "이번 치매극복선도기업 지정은 치매 치료제 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웅바이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치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제약바이오協, 17일 '상생교류회' 개최

신기술 기반 협력 사례 공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17일 오후 5시 JW메리어트 서울에서 '2025 바이오 상생교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바이오 상생교류회는 제약사와 바이오 벤처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굳건히 하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산업 교류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과 신기술 기반 협력 사례가 공개된다. GC녹십자 허정호 팀장이 'GC녹십자의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과 lesson learned'를 발표하고, 인벤티지랩 김동훈 부사장은 '인벤티지랩의 DDS 플랫폼 기술 기반 파트너십'을 소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오픈 네트워킹 및 만찬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협력 기회를 논의하고 신규 파트너십을 발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5 바이오 상생교류회'는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임원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등록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및 안내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 HK이노엔, 코로나19 변이 백신 유통

한국화이자와 NIP 코프로모션 계약

HK이노엔은 지난 달 27일 한국화이자제약과 2025~2026절기 새로운 코로나19변이 백신 '코미나티 엘피에이트원프리필드시린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을 통해 HK이노엔과 한국화이자제약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프로모션의 영역까지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코미나티 엘피에이트원프리필드시린지'는 12 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19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지난달 29일 새롭게 식약처에서 허가 승인됐다. 이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근육주사로 0.3 mL을 1 회 투여하며, 이전에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 받은 경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최소 3 개월 이후에 투여해야 한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민간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유통에 이어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 코프로모션 계약까지 확대하게 돼 뜻깊다."며 "당사의 영업·유통 역량을 기반으로 '코미나티 엘피에이트원프리필드시린지'의 안정적 공급 및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LG화학**
## '타우로키트' 독점 판매

LG화학은 4일 유케이케미팜이 개발해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유케이 타우로키트 2%주(이하 타우로키트)'를 도입, 국내 독점 판매한다고 밝혔다.

타우로키트의 주성분인 타우로리딘(Taurolidine)은 체내 합성 아미노산인 타우린에서 유래한 물질로, 생물의 세포벽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항균 작용 활성 유도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복막염, 뼈와 연조직 손상, 흉막강 농양 수술 시 타우로키트를 수술부위 세척액으로 사용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